

한경훈 / 3월 / 도약 GS / 6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34241	20	12.5	18.5	11.5	62.5	1	4.35%	7	23
534342	20.5	13.2	16	11.5	61.2	2	8.70%	7	
529059	21	13.3	16	10.5	60.8	3	13.04%	7	
529237	18.5	13	15	10.5	57	4	17.39%	5	
524423	19.5	13.5	15	8.5	56.5	5	21.74%	6	
534313	19.5	13.7	13.5	8	54.7	6	26.09%	6	
534807	16.5	13	15	9	53.5	7	30.43%	6	
534175	19.5	12.7	14	7	53.2	8	34.78%	6	
529165	18.5	12.5	12.5	9.5	53	9	39.13%	5	
529277	17.5	12.5	13.5	9.5	53	9	39.13%	4	
534222	18.5	11	15	8	52.5	11	47.83%	5	
534165	19.5	13	11.5	8	52	12	52.17%	5	
528964	19	13	12	7.5	51.5	13	56.52%	7	
534201	19	14	10	8.5	51.5	13	56.52%	7	
534426	17.5	12.5	13	8	51	15	65.22%	5	
529402	17.5	12	15.5	4.5	49.5	16	69.57%	6	
534163	19	13.3	9.5	7	48.8	17	73.91%	6	
534397	17	11.5	13	6	47.5	18	78.26%	6	
535363	17.5	13	12	4.5	47	19	82.61%	4	
534230	18	12.5	8.5	6.5	45.5	20	86.96%	4	
534188	17	11.2	9.5	7	44.7	21	91.30%	4	
534355	18	12.5	6	8	44.5	22	95.65%	5	
534187	16.5	11.5	11.5	2.5	42	23	100.00%	4	

한경훈/2월/도약GS/6회/1번	채점자
	이정은
<p><b>1. 전반적인 총평</b></p> <p>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답안 구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적법성에 대한 기재 누락이 많았습니다. 본안 요건들에 대해서 다 짚어주시면 서 포섭해야 합니다. 이 때 목차 제목으로 어떤 요건인지 잘 보이도록 해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 2</p> <p>125조 2항 2호 언급하신 분들께 추가 배점했습니다. 등록상표의 범위 등의 판례를 기재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p> <p><b>3. 소결</b></p> <p>불사취는 중요 논점이기에 다들 어느 정도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조문 언급, 적절한 판례 타겟팅이 중요합니다.</p>	

한경훈/2월/도약GS/6회/2번	채점자
	이정은
<p><b>1. 전반적인 총평</b></p> <p>119조 1항 1호를 타겟팅한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처럼 목차의 강약조절을 적절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1호와 3호 취소심판에 대한 취지를 두껍게 기재하시면서 동일성 고려 요부에 대한 판례 포섭이 필요합니다. 취지만 기재하거나, 취지를 기재하면서 짧게 언급하신 경우에는 감점이 있었습니다.</p> <p>(2) 설문 2</p> <p>요건 누락이 종종 있었으며, 요건에 대한 판례가 한두 개 누락되거나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범 답안과 실제 판례를 여러 번 읽어보며 키워드를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p> <p><b>3. 소결</b></p> <p>1번과 2번이 큰 결에서는 비슷한 문제이기에 답안을 작성하실 때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답안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p>	

한경훈/2월/도약GS/6회/3번	채점자
	윤영우
<p><b>1. 전반적인 총평</b></p> <p>평이한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논점을 빠짐없이 작성했는지, 판례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사안 포섭을 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갈렸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영문과 한글의 결합상표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상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p> <p>논점이 하나임에 비해 배점이 비교적 크므로 판례를 두껍게 작성하셔야 했습니다. 사안 포섭의 경우 실제 판례처럼 관념과 호칭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좋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답안에 적힌 판례 외에도 일부를 생략한 경우의 판례를 작성한 경우에도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불사용취소심판의 요건을 검토하여 취소심판의 심결을 예측하는 문제였습니다.</p> <p>설문 상 ‘공업식 액추에이터’에 대한 사용인지 여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적극/소극 모두 사안 포섭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동일한 점수를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취소심판의 심결도 인용/기각심결 모두 동일한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입증책임 논점을 작성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 **(3) 설문 3**

34조 3항의 거절이유를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안에서 취소심판 청구 후 심결 확정 전 출원했으므로 개정법에 대해 간단히 작성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와 출원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 누락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합상표인 등록상표 중 일부만을 채택한 상표를 출원했으므로 이 또한 논점이 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 주세요.

### **3. 소결**

불사용취소심판 논점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논점입니다. 따라서 요건인 ‘자정동3국사’에 해당하는 논점을 각각 정리하고 실제 사안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안을 작성하며 누락한 논점은 기본서에 체크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복습해 주셔야 합니다.

한경훈/2월/도약GS/6회/4번	채점자
	윤영우
<p><b>1. 전반적인 총평</b></p> <p>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20점짜리 통문제였습니다.</p> <p>배점이 큰 경우 여러 사실관계가 논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를 꼼꼼히 읽으며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합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문제에서 甲이 3년 간 상표를 불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므로 불사용취소심판이 메인 논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乙이 무슨 취소심판을 청구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취소사유에 대하여도 간단히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p> <p>“POCACHIP”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인지에 대한 논점의 경우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고 사안 포섭을 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모범 답안과 실제 판례를 여러 번 읽어보며 키워드를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p> <p><b>3. 소결</b></p> <p>논리적인 답안은 목차만 보고서도 내용이 예측되는 답안인 것 같습니다.</p> <p>내용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비등하게 목차를 잘 작성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본서에 있는 정형적인 목차를 그대로 작성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목차를 작성할 경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p> <p>또한, 목차 옆에 적극/소극, 부적법/적법 표기를 적극 활용할 경우 가독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p>	

[문제-1] (상호법은 아하, 조아라 한다.)

## I. 실문(1)

### 1. 제119조 1항 2호 취소심판 의의·취리

상표 기에 안된 도표 및 수표와 이와 변, 다른 상  
표 사용자의 신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은 사유권이 될리게 하는 대신 감속의무를 부과  
하여 사용권자가 부당 사용시 취소사유가 된다.

### 2. 대응상표 Y의 권리(각각)

#### (1) 대응상표 여라는 인식도 취소제

대응상표와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로 국내에  
서 그 상표 또는 상표나 하면 그 상표 또는  
상표가 특정인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 (2) 대응상표 범위 취소제

대응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비등록 상  
표인 경우에도 대응상표권이 인정된다.

#### (3) 상표권이 인정된 경우 취소제

등록상표가 인정된 경우, 권리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본표의 타인에 해를 끼칠 수 있다.

#### (4) 사안

① 상표 Y는 상표 A에 대하여 무의 권리충돌로 인  
식되어 있으며, ② 상표 Y가 X의 권리범위에 속하

거나 비특수 상표인 것은 문제되지 않고, ㉠대성상표에 대한 권자가 X의 권리상표인가임에도 '라인'에 해당하는 바, ㉡Y는 조.119조 1항 2호의 라인의 사용상표로서 대성상표와 인격된다.

### 3. 혼동 범위 전부 (각각)

#### (1)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 판단방법 체계

등록상표 또는 사용상표와 대성상표 사이의 위상·호칭·단형·문체·색·패턴 등으로 판단하여 판단하되, 사용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사회통정상 상품·업무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있을지가 궁극적으로 가늠해 된다.

#### (2)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체계

상표권이 이전되어 권리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계속 사용하든 경우 혼동의 우려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상표권을 배타적으로 하인의 상품 사용은 금지할 수 있는 범위와 이를 독립적으로 사용한 권자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등록상표와 신사용상표, 대성상표 사이의 관계를 고려 사회통정상 등록상표의 부당한 사용으로 평가될 정도로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3) 사안

① A사는 무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서 등록상표



X와 사회통념상 동등한 수준 X'를 Y에 대해 사용  
중인데, ② 丙 홈페이지의 '회사 연혁'란 등에 회사  
신입 직원에 甲의 관련 '甲'을 기재하여 甲과  
관련 있는 자로 오인된 우려가 있으며, ③ X'를 Y와  
유사한 식으로 해당하여 출회 연·호등 영계가 있으나,  
④ 이러한 丙의 사용은 상용권 이권으로 인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혼동 범위를 넘어서, ⑤ 사회통념상  
부당한 사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  
이므로, ⑥ 甲의 영구 등과 혼동은 불대입된다.

#### 4. 乙의 감독의무 준수 여부 (5점)

##### (1) 감독의무 준수 여부 (항 2인서)

상용권자가 사용권과 부경사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무는 한 경우에는 위와사유 면제된다.

##### (2) 감독의무의 관련 기준 (항 1제)

상용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용권과 부경 사용에 대해 주의를 준 정도로는  
부족하고, ① 사용권자의 식별 사용을 강제적으로 감독  
하는 등 사용권자 식별 사용을 식별적으로 지배 하에  
두었다는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하여야 한다.

##### (3) 브랜드 매뉴얼 교육 (항 1제)

상용권자가 사용권자에게 브랜드 매뉴얼을 교육하고 그

주식 여부를 검사하여 시정 명령을 한 권리만으로는  
사용권자의 상품 사용을 신빙적으로 지배하여 주거나  
그 밖 등 없다음 양상이다.

#### (4) 사안

① 비록 ㄱ이 丙의 상품 사용에 대해 브랜드 매뉴얼  
내부 및 그 주식 여부를 검사하여 시정 명령을 한  
사실이 있으나, ② 그것만으로는 丙의 상품 사용을 ㄱ이  
신빙적 지배 하에 주거나 할 수 있는 바, ③ ㄱ은  
丙의 사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5. 결론 - 인통심권 예상

① 丙은 등록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 X'를 ㄱ에  
사용하여 甲의 Y와 인통·상표 등에 있어 오인·혼동  
을 야기하였고, ② ㄱ이 ㄱ의 주식 여부를 다한 사실로  
없음 바, ③ 丁의 위조상표 행위는 인통심권이 침해된  
것이다.

## II. 의문(2)

### 1. 예상되는 심판 - 기각심판

(1) 제119조 제3호 위조상표의 위·취지



응축성분 분사용에 대한 제제 및 성분 사용 촉진  
을 위하여, 인정 기간 내에 성분 사용이 없는 경우  
추진사항이 된다.

(2) ~~이항~~ '그 리깅음' 의미 부여제

① 조 119조 1항 3호의 '그 자질양성'이라 함은 자질  
양성과 복내적으로 증인한 양육은 물론, ② 개사치  
통영상 증인에게 볼 수 있는 양육도 포함된다.

(3) 사안

① 비록  $2$ 은  $X$ 를 사회통념상 자빙성품이라 생각하지 않  
은 상품  $b$ 에 대해 사용하여 대응번호가 인정되지 않  
으나, ② 사용권자인  $\Gamma$ 이  $X$ 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  
품  $X'$ 를 자빙성품  $a$ 에 계속적 사용한 사실 인정되  
는바, ③ 사용번호 인정된다.

(4)  $\Sigma$ 인

따라서 3조 1항 3호에 따른 J의 책임은  
가장담당이 예상된다.

## 2. 귀납사유 추가 하부(각)

4) 심판형구서 1 본령 32/252 2항

①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는 영수증 받기 가능하나,  
② 청구의 취지 ~~불가~~ 여부를 보낼 때에는 가능하니.

(2) 사안

① J이 法119조 1항 1호는 취소사유를 추가할 것은  
 대법원이 해명하나, ② 法125조 2항 2호에 따라  
 형편이 ~~취소~~ 사유는 보충방문 허용하는 바, ③ J은 해명  
 취소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 3. 法119조 1항 1호 인정에

#### (1) 法119조 1항 1호 취소사유 추가하기

상표 내에 안의 및 수화 이익 등, 다른 상품 사용  
 의 상품·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권과의 교차의 부정사용  
 취소사유가 된다.

#### (2) Y의 대명상표 관행(관습)

① 法119조 1항 1호에 따르면 대명상표는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비  
 등록인 상표에도 관행 인정되고, ② 출원 신청인으로 '타인'  
 이 해명하는 바, ③ 甲의 Y는 대명상표 관행 된다.

#### (3) J의 부정사용 인정에

##### 1) 등록상표의 유사범위 내 사용

등록상표 X와 동일·유사한 상품권 자질상표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 또는 X와 유사한 상품권 자질상표나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했어야 한다.

##### 2) 상품·업무 등 혼동 야기

상표상표 사용으로 Y의 업무 등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부정사용의 고지

고지 부정사용에 대해 고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문]

[문제-2]

I. 실문 (1)

1. 각 조문의 취지에 따른 취지에 따른

(1) 조 119조 1항 1호

본 조의 취지에는 상품 거래 안전을 증진하고, 미성숙  
주인 인연한 환경을 방지하여 주인의 이익을 보호  
하여, 아울러 다른 상품 사용자의 신용 및 이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조 119조 1항 2호

반면 조 119조 1항 2호의 경우 본문을 제1항과 동  
등의 사용 목적을 위한 취지이다.

(3) 결론

따라서 조 119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취지인 상품  
거래 안전을 증진하는 취지와 조 119조  
1항 2호의 그 목적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각 조문의 취지를 고려해 법적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



## 2. 사안의 해설 - 甲 남편 양부(2가)

① 甲이 신상양부 1, 2가 상속증여의 관계에서 사리  
 통념상 공인한, ② ③ 192 항 조 양의 가문에 따라  
 유서방위에 계승하지 않으나 주남은 아, ④ ⑤ 142  
 항 조와 조는 각 계승의 취지를 이해 상속 증여의  
 가문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므로, ⑥ ⑦ 192 항 조  
 에서의 공인상 가문에 따라 ⑧ ⑨ 142 항 조에서의 증여를  
 같이 한 것은 아니다. ⑩ 따라서 甲의 양부는 부양이다.

## II. 실문 다

### 1. 조 1192 항 조 위·취

상속 개시 전 조로 및 상속의 이익 받은 것을 취하여,  
 상속인사가 조로 상속증여를 부양증여는 병행 취소  
 사안이 된다.

### 2. 조 1192 항 조 위·취

① ② ③ ④에 따르면 대상양부와 가족 양부의 같은 문에  
 되어 있는 바, ⑤ ⑥의 대상양부는 본조의 대상양부의  
 각력이 된다.

### 3. 甲의 유서방위 내 사용 여부(2가)

## (1) 유사범위 이 사용 권리행사 사례

신사용상품과 등록상품을 변형한 것이어서 등록상품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변형 사용한 경우 대당상  
중심의 관계에서 특허 소인·허용 범위가 더 커  
지긴 경우에는도 본 특허 유사성을 인정도 된다.

## (2) 사안

① 甲의 신사용상품은 등록상품과 문자의 배치, 굵고  
크게 변형하여 다른이 상하사, ② 이는 그 대당상  
과 가깝게 변형한 것으로, ③ 甲 등록상품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그 대당상과 특허 소인·허용 범  
위가 더욱 커지게 된다. ④ 甲 신사용상품 1, 2는  
본 특허에서 말하는 등록상품과 유사성에 해당한다.

4. 그 밖에 특허 권리 행사 여부 (각각)

## (1) 특허 권리 행사권 사례

양 상품의 다른·조형·신장을 전체·부분적으로 변형  
하여 권리행사, 즉각적으로는 신사용상품의 사용으로  
양 상품이 가리키는 상품 특허의 소인·허용 범  
위가 넓어질 것으로 권리행사 한다.

## (2) 사안

① 그 ~~특허~~ 대당상과 甲 신사용상품을 볼 때.  
② 甲 신사용상품은 그 다른 대당상과 근사하게

변형하여 강제적으로 볼 때 상당히 유사해 보여도 바,  
 ③ 이는 적당하고 甲.乙 상충 사이에 흔하게 도입·활용  
 영계가 있는 지라 보므로, ④ 甲 신상품으로 그  
 업무 등과 혼동을 일으킨다.

## 5. 甲 부임용의 의무(각각)

### (1) 부임용에 대한 신의 질서 체계

① 상표권자가 대상상품을 각 영역에서 신상품으로 사용  
 하여 흔하게 도입·활용을 일으키는 한 부임용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 ② 대상상품의 취지·구별한  
 경우에는 특유의 사상이 없는 한 권리가 인정된다.

### (2) 4단

① 그 대상상품을 취한 상표, ② 甲이 그 대상  
 상품을 인위적으로 특유의 사상으로 되어 있다,  
 ③ 甲의 부임용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 6. 상품의 제법-인용상표 예외

① 그 상품을 제법하면 甲은 그러한 부임용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② 제법상표의 인용상표 예외이다. [문]

R.5



[문제-3]

I. 식문 (1)

1. 152.1192 1863년의 '북한' 법의 판례

①특수성 있는 상품인 것은 특약상품과 일반 상품은  
의미하긴 하지만 상품에는 인위적이 없으나, ②공인된 상  
표에는 사회공인상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상품도 있음이다.

## 2! 영웅가사 한글 음역 방법 상영의 영웅 위키게

(1) 생략 사항의 중요성 인정 거부

① 영문이나 한글 음역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무엇~~  
~~중요~~ 그 원칙으로 인해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지  
않고, ② 영문이나 한글 음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더라도 일단 두어개에 그치게 하는 것도 한  
방법, ③ 영문이나 한글 음역 정확하게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해 사용한 경우라도 사회통용성 즉 사용이나 통용한  
사람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2)  $\Sigma \eta$

- ① 등숙성종을 다른 형질 사용하기로 하도록 계획함.
- ② 등숙성종에서 성과가 많은 한쌍을 선택하여 이식하  
나를 생각하여 사용하기로 하되, 영이보충수준과  
보아 일반유리나에게 중량에 영향을 받지 않게  
유리 보충한 원사 같은 것 등이 유리 등숙성종의

1. 법기를 다른 언어라고 해석하기 위함이다.

### 3. 사안

① 甲 상표는 영문 'CONTINENTAL'과 '콘티넨탈' 한글 음역이 결합된 상표이다. ② 유대나 영미 법상 국문과 국문 때 각 영문과 한글 음역이 별개의 표지인 한 표지 발음·의미가 같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③ 둘 다 '대륙'이라는 '대륙'으로 번역되어 결합된 새로운 수식어·의미가 발생하므로 다르다. ④ 甲은 상표상권과 같이 한글 음역도 생각하여도 충분히 표지·의미가 다른 바, ⑤ 甲 상표상권은 甲 등록상권과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한다.

### 4. 식물의 해충

따라서 '甲 상표상권'은 2011년 3월 30일에서 전하는 '등록상권'과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다.

## II. 식민(2)

### 1. 2011년 3월 30일 위위·취시

본상권에 대한 계약은 가한 등록상권 상표의 복제에 의해. 인위 가한 등록상권 본상권서 취시에 해당한다.

## 2. 甲 新發明品가 特許權'인니 여부(각)

신발 (1)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甲 新發明品은 등  
특許權인 社會公衆性을 具備하여 特許權에 해당한다.

## 3. '그 新發明'에 대한 사용에 여부(각)

## (1) '그 新發明' 관한 新發明

新發明에 適用가능한 것은 本件 新發明 新發明으로  
社會公衆性을 具備한 新發明에 해당한 新發明으로 해당한다.

## (2) 新發明의 新發明 新發明 방법 新發明

新發明에 適用가능한 新發明인지는 新發明의 新發明, 新發明  
및 新發明과 그 新發明 등 新發明의 新發明 新發明으로  
新發明 新發明하여 新發明해야 한다.

## (3) 新發明

① 甲의 新發明은 '新發明'인것, ② '新發明'에  
대한 新發明은 바. ③ 두 新發明은 新發明 新發明이 같고  
新發明 新發明으로 新發明하는 것은 新發明, ④ 新發明  
新發明 및 新發明 新發明하여 新發明 新發明 등  
인한 新發明은 ⑤ 이 新發明은 바. ⑥ 新發明에 新發明하여  
甲은 新發明에 新發明하는 것은 新發明.

## 4. 新發明이 新發明한 사용에 여부(각)

## (1) 新發明한 사용에 新發明으로 3항



생물과를 잘 공부하라는 강요성에 대해 오히려 주눅이  
입을해야 한다.

(2) 2019년 11월 30일 강행한 사용규정 시행

## 1) '사옹'의 의미

제 22 방 1호 객실에 해킹하는 실용범들을 구비한다.

2) '2020년' 시행의 의미

① 생물이 사육된 생물이 고혈압을 가지고 죽는다는 생애  
목적이 되는 문헌이야 하며, ② 국내에서 생애목표로  
유용하거나 유용한 것을 ~~추진~~ 개발하고 싶어야 한다.

3) 일반적 관심의 경우

생명은 생명이 생소한 사람이 있어서, 구세주인  
 성자로 개종하거나 개종한 것은 예외적이 아닌  
 만이 2011년 1월 31일 후반기에 회계하기 위한  
 명목상 생명이 불신한 경우, 강행한 생명이 불신한다.

(3) 아산

① 모든 2022.12.부터 2023.1.까지 총 5회에 걸쳐  
『甲 산용양료』를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 생산했다.

② 경제 활동이나 뜻 있는 즉 '인류보이벤트'의 세로읽을  
 전혀 간수 없다. ③ 우리 '인류보이벤트'의 세로읽  
 매 꽃 남에 들어 심한한 사슴도 들로, 1/4년 후  
 사 운영 같은 아까한 개로 개로하시 운도 바.  
 ④ 본 심인행위를 취사예를 행하기 위한 명목인 것

에 불리하고 국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⑤ 양상만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5. 실문의 해설

### (1) 불사용 여부(각각)

① 甲은 특허청이 특허 2024.9.1.로부터 2이 취  
심판은 항판 2024.12.24.에 이르러서, ② 중년성이  
인정하는 甲 사용상권은 자당상권에 강하게 사용  
바 있는 바, ③ 그 기간이 3년은 지나지 않았다.

### (2) 불사용에 대한 강행한 시효 존부(모두)

조항 甲은 이러한 불사용에 대해 강행한 시효가  
있다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취소되는 면하기 위  
해 영속성 있는 법제만 하겠다.

### (3) 전술 - 인용상권 예상

따라서 甲 사용상권에도 2024.11.2 상권 3년 취  
시효 인정한다. 인용상권 예상이다.

## III 실문 (3) 3.5

### 1. 세정리는 개량기 - 35,743 3항

최소당량의 실험성 결과는 개량, 취소당량 확보 후  
3년 이내에 취소된 상권과 유사하게 이 상권도 가능하다.

## 2. 취소심판 행정 진 현인

가심상등등등은 '취소심판이 항고라고 그 항고의 액에 다음 각도에 해당하기 인 항고'라 하여 취소심판 행정 진이나 큰 심판 항고 후 재결정시 해당 기일이 기일일로 정해지 하 하였다.

## 3. 상원의 주사여부(각각)

① 甲의 이인 등록상등등은 영문이나 한글 등등이 명칭이라 취소심판에 따라 한글 등등으로 변경·인정된 것인데,

② 위등등은 영문과 한글을 비교할 때 'CONTINENTAL'이 영문과 'CONTINENTAL'이 한글 등등으로 함께 갈 수 있고,

③ 甲 출원 상등등과 이인 등록상등등은 모두 '대륙'으로 인정되어 관청이 동일하거나 작기로 유사한 것이며,

④ 그 외형에 있어서도 'CONTINENTAL'로써 같은 관청 유사한 것인 바, ⑤ 上원의 주사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상등등의

특성상(취소심판), ⑥ 이러한 한글·인정의 유사한 과인이 다른 상등등의 관청으로 인정되나, ⑦ 양 상등등은

오인·동등 명칭이 같은 취소심판이다.

## 4. 심판의 해당·등등 불가

甲 출원 상등등은 이인 등록상등등과 동일·유사한 상등등을 동일 한 상등등에 대한 해당 관련 이 출원한 것으로서, ⑧ 上



3항에 반하여 등록 불가능하다.

[문제-4]

11.5

I. 2019년 11월 30일 특허심판 위·취시

특허심판 위·취시 및 사용권 등록 위·취시, 인·출  
불·출시 위·취시로 규정하고 있다.

II.쟁점점거

① 다른 위·취시는 문제에서 찾아 2019년 11월 30일 심판  
할 것인 바, ② 특허 1호의 권리 범위가 甲의 사용으로  
인정된 후 있다. ③ "POCACHILD"가 甲 사용자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④ 특허에 대한 권리 범위가  
있으나 문제에서 없다.

III. 1호 사용이 甲 사용으로 인정된다(제1항 제1호)

1. 사용의 주체 - 甲

상업적·진정상업적 또는 통상상업적 등 어느  
누구도 권리 범위에 있어 등록권한을 취득할 수 있는  
인 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2. 제3자의 사용 - 예외 제1항

하한 상표권과 등이 외국에서 상표에 상표를 표시하  
 였을 뿐 국내에서 상표라 인식하지 않으므로, ① 제 3자가  
 상표권과 등이 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상표를 국내로  
 수입하여, ② 그대로 국내에서 정상 유통될 때에  
 국내에서 상표가 특정한 상품 출처로 인식된 경우,  
 ③ 상표권자의 ~~상표권~~ 국내 등록권 상표권으로 볼 수  
 있다 한다.

### 3. 사안

① 甲이 국내에서 특정 甲 상표를 사용한 것을 보거나,  
 ② 乙이 甲이 "POCACHIP"을 표시한 그대로 상품을  
 국내로 수입, ③ "POCACHIP"은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  
 에게 甲 상품 출처로 인식된 바, ④ "POCACHIP"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면 甲의 상표권이  
 인정 된다.

## IV. "POCACHIP"의 등록권 여부(예제)

### 1. 등록권 발생 예제

등록상표나 함도 등록상표와 문자 동일한 상표는  
 물론, 사형형상 표의에 볼 수 있는 상표를  
 포함한다.

### 2. 식별력 없는 부가 사용 예제

(식별력이 없는 미숙한 부호로 부가 사용된다는 하리



다른 경우에 따라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통용되  
는 볼 수 있는 다른 표식·문양이 생략 되어 있거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하여 사회통  
상 통용한 상표는 인출식 인정한 사항 없다.

### 3. 사안

① 甲 등록상표 'POCA'에 부착된 'CHIZP'은 '가름'에  
특히 쉽게 생략되어 '리'로 '리'라 하여 인식되어 그 가  
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② 'POCACHIZP'인  
표는 부속과 볼 때 'POCA'와 'CHIZP'이 대체하  
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고, ③ 해당 표는 세 줄짜리  
"포카림"으로 판독되어, ④ 'POCACHIZP' 자체가 하나의  
브랜딩 표식·인식상표로써, ⑤ 사회통념상 'POCA'와  
통용되므로 볼 수 있는 다른 표식·문양이 서로 이  
성격상 다른 표식이다. ⑥ 등록상표 사용은 볼 수 없다.

### V. 불충족에 대한 항쟁한 사례 판례(소극)

#### 1. 항쟁한 사례 약 12/19년 3회

상표심판은 불충족에 대해 항쟁한 여자가 인출  
소로 수장·항쟁해야 한다.

#### 2. 항쟁한 사례 판례는 4/17년

불충족에 대한 항쟁한 자는 원제리본·리본 등본  
이러나 국내에서 식별력·인식상표로 인정받은 볼 수 없다

상업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의미한다.

### 3. 사안

甲이 국내에서 영업 행위를 하기 사업장이 없는데  
필요한 것은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사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VI 신문의 배부 - 인공성능 예상

따라서 甲은 국내에서 광범한 야구 팬이 30만 이상  
응답자들은 그 40만명에 상당한 양도 바. 2이  
취득한 것은 인공성능이 예상된다.

<이하 여백>

## [문제-1]

## I. 선문(1)

(4)

1. 법 119조 1항 2호 이하, 취지

상표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거래와 밀접한  
이익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목적에  
비추어,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영업상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자에게 혼동을 일으킨  
경우, 제소자에게  
책임한다.

2. 이 유 4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적극)

(1) 유 4항에 사용 여부 판단 기준 제시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대응상표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유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이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사용으로 본다.

(2) 4항

본문 등록상표 X와 4회용년상 동일한 상표 X'를  
동일한 상품 A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등록상표를 변형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유사범위 내의  
사용에 책임한다.

3. Y의 대상권적 권리(적극)

(1) 요구되는 인식도 제시





대상상품은 적어도 국내 특정인의 상품 클리프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2)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타인' 범위 제외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출원 상표권자나 그의 허락을  
받은 사용자와도 타인에 포함된다.

(3) 미등록 상표인 경우 제외

상표법상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살을 수 있다.

(4) 사안

① 甲의 사용상품 Y는 국내 수요자에게 甲의 클리프로  
인식되었고 ② Y가 미등록상표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될 수 있으며, ③ 甲은 상품 X의  
출원 상표권자이나 '타인'에 해당하므로 Y는 대상  
적격을 가진다.

4.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적극)

(1) 혼동 판단기준 제외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실사용상품의  
변형 정도, 대상상품과 근사한 정도, 양 상품이 상등에  
사용되는 형태, 상품 간 관련성, 수요자에게 인려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2) 상표권 이전에 있는 경우 제외



상표권이 이권된 경우 중권 상표권자의 압력과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9 경우 금리협약권 (조약 108조 1항 1호, 107조 1항)의 범위와 독점사용권 (조약 89조) 범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상호 간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 사회통념상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 (3) 4단

① 상표X가 甲에게서 乙로 이권된 후 乙에게 사용 허락을 받은 丙은 i) 대상상표 Y와 유사한 X'를 ii) 동일한 상품 丙에 사용하고 있고 iii) Y는 甲이 출원으로서 알려진 바 수표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② 또한, 丙은 甲의 전신인 '甲1'을 출원하여 회사연혁란 등에 기재하였으나, 丙과 甲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수표자들이 볼 때 甲이 출원로 인식할 것인바 사회통념상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③ 따라서 丙의 사용은 수표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 5. 乙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 (소극)

#### (1) '상당한 주의' 의미 제시

상당한 주의란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하에 두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4안

① 乙은 丙에게 상품 4통에 대한 브랜드 메뉴얼을 교부하고 그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시험 요령을 했으나, ② 이런 사항만으로는 乙의 실질적인 지배력에 두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丙은 甲의 상품 출처와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부정사용을 하였고, 乙은 이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바 3항 119조 1항 2호에 해당하여 인통실질의 내러진 것이다.

II. 실문(2)

1. 취소실한 예상실적 - 기각실적

(1) 3항 119조 1항 3호 외의, 취지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고 불4통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이상 불사용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4안

① 乙은 상품 X를 지정상표 a와 사회통념상 동일하게 많은 상품 b에 사용한 바 외의, ~~지정상표 a에도~~



~~사용하였고~~ ③ 乙의 사용권과 丙은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품 X'를 지정상품 A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乙는 119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각성결 예상된다.

## 2. 乙 119조 1항 1호 추가 거부(적극)

### (1) 乙 125조 2항 2호

심판 청구서의 보충은 보기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 이유를 보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다만

乙은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 乙 119조 1항 3호를 주장하였으므로 상품 범위를 처음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해 乙 119조 1항 1호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 3. 乙 119조 1항 1호 인정요건

### (1) 乙 119조 1항 1호 의미, 취지

상품 거래 안전, 수요와 이익 보호 등 상품권자가 고의로 유사범위에서 사용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2) 유사범위의 사용 여부

乙의 사용상품 b는 지정상품 A와 유사하므로 유사범위 내의 사용이다.

### (3) 혼동 여부



乙의 사용으로 인해 甲 상표 Y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고의 중복

乙이 甲 상표 Y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2]

I. 실문(1)

1. 각 조문의 취지

(1) 法 119조 1항 1호 취지

상표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질을 높이고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상품 사용자의 영업상 신용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이다.

(2) 法 119조 1항 3호 취지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고 불사용에 대한 위태를 가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등록취지를 보완하여 제3자 상표 선택의 기회를 넓이기 위함이다.

2. 甲의 당변의 타당성 - 부당

(1) 法 119조 1항 1호의 '유사' 판단 제1절

法 119조 1항 1호에서 유사범위의 사용인사 여부를

法 119조 1항 3호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관계 없이



각 조문의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4안

① 조항 119조 1항 1호와 3호는 각각 2 조문의 취지가 명확히 다른 규정이므로 ② '동인'과 '유사'에 대한 판단은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조항 119조 1항 3호의 동인성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용이라는 甲의 양변은 부당하다.

4.2

II. 설문(2)

1. 조항 119조 1항 1호의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를 유사범위/이서 사용한 경우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이 일어났다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甲이 유사범위에서 사용했는지 여부(각각)

(1) 유사범위 사용 판단기준 제시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처 혼동이 두렵거나 더 커지게 되었다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

(2) 4안

① 甲은 자신의 등록상표를 가로에서 세로로 변형하여 식사용 상표 1을 사용하였고 ② 정자로 배열된 甲 등록상표를 지그재그로 배치하고 글자 크기도 각각 다르게 함으로써 식사용 상표 1, 2를 사용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은 일으키게 되었으므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 3. 2대상상표의 적격 검토(각각)

#### (1) 요구되는 인식도 제1사례

대상상표는 국외·지명항 것은 모라지 않으나, 국외도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어야 한다.

#### (2) 권리범위 속하거나 비등록인 경우 제1사례

대상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 비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볼 수 있다.

#### (3) 4인

① 대상상표가 등록된 4권이 없고 甲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적격성이 문제이고, ② 乙의 대상상표는 甲 4용 권부터 검토 용돌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국외한 바 적격성이 인정된다.

## 4. 활동 목록 (적극)

## (1) 활동 판단기준 제1예

외관·호칭 관념은 전체적으로 관관하여 유사용상품의 변형 정도, 영 상품이 상품에 사용되는 형태, 상품의 근사한 정도, 상품과의 관련성,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 (2) 4단

유사용상품 1과 2는 2의 대상상품과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도 같다고 보여지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또한 '캐디백'과 '골프백'은 유사한 상품이며 2의 대상 상품은 수요자들에게 극히하게 알려졌으므로 1의 유사용상품들은 2의 임박한 관련된 상품과 활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5. 고의 목록 (적극)

## (1) 판단기준 제1예

대상상품이 즉·지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추정된다.

## (2) 4단

2의 대상상품은 골프용품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극히한 바 1의 고의는 추정된다고 보여진다.

## 6. 결론 - 인통상결 여상

甲은 고의로 자신의 등록상표를 제4항위에서  
 사용하여 출처표등을 일으킨바 3항 11항 12항 13항  
 해당하여 인통상결이 예상된다.

(3.2)

## [문제-3]

## I. 식문(1)

## 1. 재심판리

甲이 '甲식상표'를 사용한 것이 불사용위에서  
 여서의 '甲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살핀다.

## 2. 등록상표의 범위 判例

등록상표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상표 자체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도  
 포함된다.

## 3. 영문과와 한글음역 결합상표의 인부사용

## (1) 判例

영문과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한 상표에서

1)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고

2) 영문과와 한글 중 어느 한 부분만으로도 동일하게

호칭되는 경우 거래사회동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다.

(2) 정도

① 시장의 변화에 따라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거래 현실이고, ② 우리나라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할 때 한글은 영문을 그대로 표칭한 것을 안기 쉬우며 ③ 연합상표 제도가 폐지된 것 등을 고려할 때 제1회 태도처럼 사회동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 4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4만

① 甲의 등록상표는 'CONTINENTAL'라 이를 단순히 음역한 '콘티넨탈'이 결합된 상표로서, ② 이 둘의 결합으로 인해 '대륙통의'라는 관념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고 ③ 일반 소비자들이 보고 'CONTINENTAL'을 쉽게 '콘티넨탈'로 동일하게 표칭할 것이므로 '甲'식사용상표는 '甲'상표와 동일한 상품의 사용에 해당한다.

II. 설문(2)

7.5

1. 제119조 1항 3로 의의, 취지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고 불사용에 대한 위태를 가하기 위해 상표권과 등이 광대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2. '지정상품'에 사용했는지 여부 (소극)

### (1) 지정상품이 특정 사례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조적 거래실정 등을 기준으로 거래통념상에 따라 판단한다.

### (2) 지정상품의 의미 사례

지정상품 그 자체는 물론 거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도 포함된다.

### (3) 4인

지정상품인 '고급 브이벨트'와 '엔진용 벨트'는 유사한 코드가 동일하고 기계용 부품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공통되나 품위 및 형상이 상이한바 지정상품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3.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소극)

### (1) 정당한 사용 판단기준 사례

상표법상 상품의 개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 예정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광고행위가 병행상 사용인 상유 사례

등록상품이 광고 등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처

표시로 사용되지 않거나, 국내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을  
예상하지도 않는 경우 등 명목상 사용란 경우라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다.

### (3) 사용

- 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주 1회씩 총  
5회에 걸쳐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甲식사용상표'가  
'고북 브이벨트'와 관련하여 광고란 사용이 인정되나,
- ② '고북 브이벨트'의 지리정보를 전혀 알 수 없고,  
제조·판매 및 납에 등과 관련한 자료는 물론  
甲의 기밀적인 회사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③ 국내에서 정상  
적으로 유통된다고 보기 어렵고 유통 예상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④ 이는 단지 불사용취소를 변하기  
위한 명목상 광고행위에 불과하므로 ~~甲은~~ 등록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다.

### 4. 결론 - 인용심판 예상

- ① '甲식사용상표'는 ~~甲의~~ 등록상표와 사외특정상  
등인한 상표에 해당하나, ② 지평상표 '고북 브이벨트'와  
'엔진용 벨트'는 동일성 인정되지 않고 ③ ~~甲의~~ 광고  
행위는 불사용취소를 변하기 위한 명목상 행위에  
불과하며 ④ 상표등록일인 2021. 9. 1로부터 3년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24. 12. 24까지  
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인용심결  
예상된다.

## Ⅱ. 설문(3)

2.5

### 1. 法34조 3항 아예, 취지

최소실효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실효 청구  
후 일정 요건 만족시 상표권과 등은 3년 이내  
유사범위 내 개출권이 불가하다.

### 2. 최소실효 청구 후 실질 확권권인 경우

개정 상표법상 法34조 3항의 판단시점을  
'실효청구일'부터 '실질확권 후 3년까지'라고 명확  
하게 규정하였다.

### 3. 상표의 유사여부(적극)

'CONTNENTAL'과 '콘티넨탈'이 결합된 甲의  
예전 상표와 새로 출원한 'CONTINENTAL' ✓  
을 외관은 한글 음역의 차이가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유사범위의 상표  
에 해당한다.



## 4. 4안

## (1) 시기적 요건 충족 여부 (각각)

甲의 출원상표는 취소심판 항소일인 2024.12.24  
이후이자 심판 확정일인 2025년 6월 전인 2025.  
5.2에 출원되었으므로 3항의 시기적  
요건은 만족한다.

## (2) 등록 가부 (소극)

취소 심판 확정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상품 '고무 브이베트'에 출원한 바 甲은 등록받은  
수 없다.

## [문제-4]

11.5

## I. 3항 1항 3호 의미, 취지

등록상표의 사용을 출원하고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상표권과 등이 권당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불사용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II '甲'이 사용했는지 여부 (각각)

## 1. 원상

3항 1항 3호는 상표권과, 원용사용권과, 통상  
사용권과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아서 적용된다.

## 2. 제3자가 국내 사용한 경우 제1항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사용한 바 없더라도 ㄱ) 제3자에 의해 국내로  
 수입되어 ㄴ) 등록상표를 표식한 그대로 국내에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높이기 됨으로써 ㄷ) 사회  
 통념상 수요자들이 상표권자의 출처 표시로 인식  
 된 경우 이는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본다.

### 3. 사안

① 甲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적 없이 베트남  
 에서만 사용했으나 ② 제3자 乙의 수입에 의해  
 ③ 국내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꾸준히 납품  
 했고 ④ 수요자들은 'POCACHIP'을 甲의 상표에  
 관한 출처 표시로 인식하였으므로 ⑤ 甲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III. 甲 상표의 동일성 인정 여부(소극)

### 1. 등록상표의 범위 사례

등록상표 2 개체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표도 포함된다.

### 2. 결함으로 인한 새로운 관념의 형성 사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결함하였어  
 라도 전체적인 구성 등이 비극어 등록상표의  
 동일하지 않은 외관·칭호·관념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사취동년상 동일한 상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3. 4단

① 'CHIP'은 과립상품 '과과'와의 관계에서 그 과제로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나, ② 'POCA'와의 결합으로 인해 수요자들은 'POCACHIP'을 하나의 브랜드로 호칭·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③ 'POCA'와 'POCACHIP'은 외관·호칭·관념 모두 상이하므로 사취동년상 동일한 상품라고 볼 수 없다.

### 4. 甲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소극)

#### (1) 판단기준 제시

각종 기타 권리리변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국가의 수입 제한 조치 등 상품변화의 지해사유로 인하기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 (2) 4단

甲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단지 국내에서 사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지해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甲이 복사용이론 상당한 이유가 없다.

### 5. 결론 - 인용상설 예상

甲은 국내에서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시권상표에  
 사용하게 사용했고, 본사등이 정당한 이유도 없  
 는 바- 특허 119조 1항 3호에 해당하여 인용  
 심결 내려질 것이다